

중 조이롱차 한국진출 걸림돌 2년 만에 해결

중국 조이롱 전기자동차의 한국 진출에 최대 걸림돌이었던 국내 인증과 친환경 보조금이 투자협약(MOU) 체결 2년여 만에 해결됐다. 1 대당 1억원에 가까운 보조금이 확정되면서 한국시장 진출로가 확 트인 가운데 당초 예정대로 '메이드 인 광주(MIG)', 즉 광주 현지 생산을 위한 공장 신설과 광주형 일자리 창출, 차량 소유주를 위한 충전설비를 풀어야 할 과제도 떠오르고 있다.

광주시에 18일 전기자동차 등 지을 이끌고 있는 중국 BYD의 전기버스 eBus-7에 적용한 보조금 단계와 같다. E6는 전장 6m의 15인승 크기로, 마을버스, 학원버스, 어린이집, 소규모 기관단체 공영차량으로 수요가 예상된다. 고효율 리튬이온 배터리 탑재로 2시간 이내 충전으로 160km의 거리를 정속 주행할 수 있다. 영구자석식 동전설비를 풀어야 할 과제도 떠오르고 있다.

충전, 제동시스템, 등화장치 등 모두 38개 항목 가운데 최대 난관이었던 등판 능력도 수개월간의 보강작업 끝에 해결됐다. 이로써 상용은 완성됐고 이제 남은 과제는 생산시설과 충전설비를 어떻게 갖추느냐고 모아지고 있다. 2018년 3월 MOU 체결 당시 2017년부터 E6 2000대 양산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전기합차 2만대, 기타 차종 8만대를 양산하는 광주공장을 완성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아직까지도 최종 부지를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등판 능력 등 국내 인증 38개 항목 모두 통과 환경부 6000만원 · 광주시 3000만원 보조기로

방비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이롱자동차 한국법인이 국내에 수입판매할 E6 미니 전기버스에 대당 3000만원 상당의 시비 보조금을 지원키로 의결했다. 앞서 환경부는 전기차 국고보조금 지급 기준에 따라 E6 전기차를 친환경 중형 버스로 규정하고 대당 6000만원의 국비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세계 친환경차 시장

을 앞둔 중국 BYD의 전기버스 eBus-7에 적용한 보조금 단계와 같다. E6는 전장 6m의 15인승 크기로, 마을버스, 학원버스, 어린이집, 소규모 기관단체 공영차량으로 수요가 예상된다. 고효율 리튬이온 배터리 탑재로 2시간 이내 충전으로 160km의 거리를 정속 주행할 수 있다. 영구자석식 동전설비를 풀어야 할 과제도 떠오르고 있다.

국내 완성차 대기업의 절반 수준 임금을 주는 '광주형 일자리'를 통해 몇몇을 어떤 방식으로 신규 채용할 지도 세부적인 숙제다. 여기에 배터리 용량이 일반 전기자동차의 2~3배에 달해 충전시간 단축 등 기술 확보는 물론 어디서도 편하게 충전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도 서둘러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다. 국내 자동차 분야 한 전문가는 "보조금 인증이 통과한 건 의미있는 일이지만 불과 워킹업이 끝난 것이고 본격가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조급하지 않고, 차분하면서도 치밀하게 준비할 때"라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인권헌장 선포 20주년 맞아 '5·18정신 계승' 한뜻



16일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지금은 실천할 때'를 주제로 '2018 광주아시아포럼' 개막식이 열리고 있다.

아시아인권헌장 광주 선포 20주년을 맞아 각국 인권 활동가들이 5·18 민주항쟁 정신을 계승하자는 뜻을 모았다. 5·18기념재단은 16일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지금은 실천할 때'를 주제로 '2018 광주아시아포럼' 개막식을 열었다.

개막식에는 아시아 각 지역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일하는 활동가 등 16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포럼에서 정의권·평화권·문화권을 보강한 보조헌장을 선포했다. 바실 페르난도 전 아시아인권위원장은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대부

분 아시아 국가들을 포함한 개발도상국들은 시민의 권리를 전적으로 보호하는 사법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 않고,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다"며 "이 같은 문제에 관심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1980년 군에 맞선 광주시민들은 위대한 정신과 용감함을 보였다. 민주주의를 구하기 위해 자신들의 목숨을 희생했다"며 "우리는 오늘 (광주와)같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우리의 신념이 무엇이고 삶에서 이를 실현할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5·18 참상을 세계에 알린 고(故) 찰스 헨트리 목사의 부인 마사 헨트리(76) 여사는 "정의의 향방 광주의 품과 같기를 잊지 말아야 한다"며 "광주는 어둠 속에서 빛나는 빛을 가져오는 햇살임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강조했다.

조인호 기자

19일 지방공무원 9급 공채시험 실시 평균 경쟁률 14.2대 1

2018년도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이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365개 시험장에서 19일 일제히 실시된다. 1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선발인원은 지난해(1만315명)보다 늘어난 1만4811명이다. 지원자는 총 21만5399명이다. 지난해(22만501명) 대비 9962명이 감소했다. 평균 경쟁률은 14.2대 1이다. 모집직군별 경쟁률은 행정직군(8906명) 17.5대 1, 기술직군(5905명) 9.3대 1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구 26.5대 1, 부산 22.9대 1, 대전 21.2대 1 순으로 경쟁률이 높았다. 전남(10.1대 1), 충남(10.8대 1), 충북(11.0대 1) 등은 경쟁률이 낮은 지역으로 분석됐다. 지원자 연령대는 20~29세가 60.4%(12만7215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39세(31.8%·6만6886명), 40세 이상(6.6%·1만3939명), 19세 이하(1.2%·2499명) 등의 순이었다. 19세 이하 응시인원은 지난해(908명)와 비교해 1591명이 증가했다. 지원자중 여성은 11만8096명(56.1%)으로 지난해(54.7%)보다 조금 높았다. 이번 필기시험 결과는 6월14일부터 7월5일까지 각 시·도별 누리집을 통해 발표된다.

윤장현 시장 "5·18 38주년 미완의 과제에 힘 모아야"

윤장현 광주시장은 16일 5·18민주화운동 38주년을 맞아 실제적 진실규명 등 미완의 과제를 해결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시장은 이날 오전 간부회의에서 "지난해 제37주년 기념행사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 5·18에 대한 재평가와 미래 가치 정립 등 광주에 아픔을 보듬어줬다"며 "이후 5·18진실규명지원단 운영, 전일빌딩 총탄 흔적 발견, 국방부 특조위의 전일빌딩 헬기사격 공식 인정, 5·18진실규명 특별법 제정 및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 등 많은 성과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윤 시장은 "38주년을 맞는 올해에는 전두환 회고록 등 5·18의 궤적·왜곡·은폐로부터 실제적 진실을 규명하고 5·18정신의 헌법전문 수록 등 미완의 과제를 푸는 데 다시 한 번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

서은홍 기자

동구, 오는 19일 제7회 토요일음악산책 개최

광주 동구는 오는 19일 광주음악초등학교에서 '제7회 달빛빛음을 토요일음악산책'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요일음악산책은 4월부터 9월까지 매월 셋째 주 토요일 6개 권역을 찾아가며 다양한 장르의 음악회를 개최해 '문화예술특구'다운 면모를 갖춰나가는 한편 주민들의 문화유구를 충족시키고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날 저녁 7시 산수동 음악초등학교에서 열리는 토요일음악산책은 '희나리'로 유명한 송골매 출신의 가수 구창모 팝페라 그룹 '친친클래식', 금관악기 밴드 '전남 브라스 콰르텟' 등이 출연해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인다.

서구, 복합민원에 민원후견인 도움 받으세요

광주 서구가 민원 1회 방문 처리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원후견인제를 실시한다. 민원후견인을 지정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로 주민에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것. 민원후견인제는 각종 인허가 등 복합민원 처리시 행정 경험이 풍부한 관련부서 팀장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민원 접수에서부터 처리까지 상세한 안내와 상담을 지원하는 제도다. 법정처리기한이 7일 이상인 복합민원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그 외에도 장애인, 노약자 등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민원후견인 지정이 가능하다.

남구, 에너지지림마을 컨소시엄 참여기업 모집

광주 남구는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2019년 신재생 에너지 보급(융복합 지원) 공모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남구 관내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모델 발굴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 참여기업을 공개 모집한다. 사업비 지원 규모는 587억원(전국) 내외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공모 사업 수행 지자체에 선정되면 해당 지자체에서 제출한 사업에 부여되는 총 사업비의 50% 내에서 국비가 지원된다. 이에 따라 남구는 에너지 밸리 주변 지역인 대촌동을 에너지 지림마을로 구축해 연료비 절감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도모하고,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촌지역에 신재생 에너지를 보급하는 계획을 세워 둔 상태다.

북구, 일곡도서관 인문독서아카데미 운영

광주 북구가 지역 주민의 인문정신 고양과 독서문화 증진을 위한 쉽고 재미있는 인문학 강좌를 운영한다. 북구는 오는 28일까지 인문학을 주제로 깊이 있는 인문학 책 읽기를 지원하는 독서교육 프로그램인 '일곡도서관, 2018년 인문독서아카데미' 수강생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되며, 지역 주민들의 인문학적 소양을 높이고 독서문화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강인원은 50명 내외이며, 수강신청은 전화 및 도서관 홈페이지(도서관행사-문화강좌 수강신청)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광산구, 20일 수완호수공원에서 세계음식 문화축제

광주 광산구가 주최하고,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제6회 세계음식·문화축제'가 20일 수완호수공원 야외공연장에서 열린다. 세계인의 날을 맞아 세계 각국 전통음식과 의상 놀이를 즐길 수 있는 이번 행사는 '문화다원형 확산'을 주제로 선주민과 이주민이 어울리며 우애를 다지는 맛과 멋의 장. 축제장 음식체험부스에서는 베트남의 '반미'(샌드위치), 캄보디아의 '커코'(소고기스튜), 태국의 '카놈팜'(만두) 등 세계 8개국 16개 음식을 선보인다. 아울러 행사장 곳곳에서는 중국 치파오, 베트남의 아오자이 등 여러 나라 전통의상을 입어보고 태국의 '드인까라', 필리핀의 '송까' 등 각국의 전통놀이도 즐길 수 있다.

임행택 기자

"호남신문과 함께 할 주제기자 모집합니다"

고흥 · 나주 · 장성

湖南新聞이
지역공감
미래창조
정론직필의
나무를 키우겠습니다.

전 화 : 062-224-5800
e-mail : ihonam@naver.com
F a x : 062-222-5548
홈페이지 : www.ihonam.com

湖南新聞

고객 감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을석 세무회계사무소

- 법인 설립
- 임대상속중여
- 기업 진단
- 기 장 대 리
- 건설면허신청
- 외 부 감 사

광주시 서구 대월동 948 산업융재유동센터
30동 217호(풍암지구)
TEL : 062-603-1060 FAX : 062-603-1062
H·P : 011-641-6152

▶ 비계 구조물 해체공사 리

▶ 지정·건설 폐기물 처 ▶ 석면 해체공사

측량 >> 토목설계 >> 도시계획
토목공사 >> 창업상담 >> 관계민원업무

광주 서구 삼촌동 994-1 영산강빌딩 별관 203호

(주)고려환경개발 Tel : 062)361-0404
(주)고려기술공사 Tel : 062)362-8251

월드노무법인
World Labour Corporation

- ▶ 노동법 기업컨설팅 ▶ 산재업무대리
- ▶ 급여체계 정비사 ▶ 징계(해고)자문
- ▶ 4대보험 무료대행 ▶ 노동부 지원금

노동부 옴부즈만위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광주·목포 노동청 전문위원

대표/공인노무사 박정태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04 밀알신협 5층

Tel : 062)512-0336 H·P : 010-3624-0338